

한지꽃 통한 생노병사 감정 여정 만난다

전주문화재단, 전주천년한지관 두 번째 기획전
‘그럼에도 꽃이었다’ 8월 16일까지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전주천년 한지관에서 두 번째 특별 기획전 ‘그럼에도 꽃이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지로 제작된 ‘지화(紙花)’를 중심 소재로 삼아,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의 감정 여정을 따라가는 감성참여형 전시다.
전시는 ‘그럼에도 꽃이었다’라는 주제로, ‘생(生)·노(老)·병(病)·사(死)’의 흐름에 따라 다섯 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현했다. △‘생’은 프리지아, 수선화 등 밝은 꽃으로 삶의 시작을 표현하고, △‘노’는 모란, 수국을 통해 시간의 깊이와 변화된 색을 담아낸다. △‘병’은 해바라기, 장미와 찢긴 한지로 상처와 혼란 속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사’는 백합, 동백 등 시든 꽃과 침묵의 공간으로 삶의 마지막을 상징한다.

더불어 ‘기억의 공간’은 한지꽃이 흩날리는 영상과 자이언트 민들레꽃씨 조형물로 삶과 기억의 흔적을 형상화했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는 전통 공예인 지화를 통해 생노병사의 인간적 여정을 감성적으로 표현한 시도”라며 “한지를 통해 전주의 전통문화가 현대적 예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시민과 관람객들이 전시에 참여해 한지와 공예,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천년한지관(063-281-16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특별 기획전 ‘그럼에도 꽃이었다’ 포스터

전주공예품전시관, 휴게공간·수유실 새 단장

15일부터 전면 개방... 쾌적한 환경 제공

전주공예품전시관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게공간과 수유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오는 15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지난 11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에 따르면 전주공예품전시관 내 다목적 공간인 ‘누리관’을 새롭게 정비해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새로 마련된 누리관에는 냉·난방시설은 물론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춰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체험관 옆 구석에 위치해 이용이



불편했던 수유실을 누리관으로 옮겨,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새 수유실에는 아기침대, 수유자, 기저귀 교환대 등이 비치돼 있으며, 환기와 위생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입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이번에 새로 조성된 휴게실과 수유실은 공예품전시관 관람객뿐만 아니라 한옥마을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람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휴게공간과 수유실은 공예품전시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전시관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여름방학 맞아 ‘틴틴창극교실’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틴틴창극교실’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극과 판소리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전통예술을 직접 배우고 무대에서는 과정을 통해 예술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올해 프로그램은 판소리 ‘흥부가’를 주제로,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성과 표현력, 협동심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판소리와 전래놀이, 국악동요 등을 익히고 창극 ‘흥

부전’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강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원은 선착순 20명으로, 8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1일간 운영되며, 교육 장소는 국립민속국악원 내 연습실 및 남원시 지리산 소극장이다.
교육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수료 발표회가 열려, 수강생들이 직접 창극 공연을 선보이고, 수강생 모집은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7월 23일 오후 6시까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장악과(063-620-2319)로 문의하면 된다.



2319)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반려동물도 함께하는 온 가족 콘서트

군산시립예술단, 19일 ‘모기장 너머, 여름의 소리’ 개최

군산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여름밤 추억을 선사할 감성 가득한 야외 공연을 준비했다.
오는 19일 오후 8시,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소공연장 옆)에서 열리는 광장 콘서트 ‘모기장 너머, 여름의 소리’가 그 무대다.
이번 공연은 연인, 가족과 반려동물이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모기장을 객석으로 활용한 이색 콘셉트로 꾸며졌으며, 군산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이 참여해 한여름 밤의 감성을 클래식 선율로 아름답게 표현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모기장 객석과 일반 계단석 모두 반려동물과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며, 반려견의 경우 7kg 미만의 소형견만 동반할 수 있다. 단, 반려견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 펫 유모차를 이용해야 하며, 배변 봉투 지참은 필수이다.
모기장 형태 좌석은 약 30석으로, 11일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하지 못한 관객도 계단 등 일반 야외 관람석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나, 모기장 좌석 예매 시 노쇼 방지를 위한 소액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야외공연 특성상 우천 시 부득이하게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연 일정은 추후 공지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이번 콘서트는 가족 단위 관객뿐 아니라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기획됐다.”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김민호 기자

감성 뮤지컬 ‘그해 여름’ 정읍사예술회관서 25일 공연

정읍시가 무더위 속 시민들에게 예술적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감성 뮤지컬 ‘그해 여름’을 정읍사예술회관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시대적 배경과 감성적인 이야기를 담아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1980년 삼선개헌 반대운동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 ‘그해 여름’은, 김은희 작가 각본, 이병현·수에 주연의 동명 영화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청춘의 사랑과 갈등을 섬세하게 담아낸다.
주인공 석영은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던 중 농촌 봉사활동을 계기로 시골 마을 수내리를 찾게 되고, 그곳 도서관 사서 정인을 만나 애절한 사랑에 빠진다. 시대의 격동 속에서 흔들리는 두 사람의 마음과 감사항, 그리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해집었는지를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공연 시간은 100분이며, 입장은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 가능하다. 입장권은 1인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시작된다. 관람료는 1만원으로, 정읍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50% 할인이 제공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